브라질 매체 " '기생충'만큼 유명한 한국요리" 한식 집중 소개

'기생충' 이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영화제를 석권하면서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브라질 한류가 빠르게 저변을 넓히고 한류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브라질 유력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 가 13일 '기생충만큼 유명한 한국요리' 라는 제목 아래 한식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사진).

folhacorrida
FOLHA DE S.PAULO ★★★
ALÉM DO CINEMA
COZINHA BRUTA | Marcos Nogueira
Comida coreana é tão pop quanto 'Parasita'

14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폴랴 지 상파울루' 는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의 주인공인 '기생충' 이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면서 한인 동포 사회와 한국 음식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이 신문은 쌀밥과 김치, 반찬류 등을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꼽으면서 고추장·깻잎 등 전통 식자재, 불고기·비빔밥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식을 알렸다. 이어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 5만여 명 규모의 한인타운이 조성돼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음식점의 메뉴와 위치 등을 안내했다.

또 1960년부터 시작된 한인 이민사와 함께 삼성·LG·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실도 다뤘다.

한편, '폴랴 지 상파울루' 는 과거에도 한식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14년 10월 2일 3개 면에 걸쳐 한국 음식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1면에는 '비빔밥을 먹어 보셨나요?' 라는 제목을 단 비빔밥 사진과 함께 한국 음식 메뉴를 나열하며 한 면을 가득 채웠으며 4면과 5면에서는 된장찌개와 잡채, 김치, 불고기, 삼계탕 등 한국의 대표적 음식에 관한 기본 정보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특히 '밥' 을 일본식 표현인 '고한' (Gohan)이 아니라 한국어인 '밥' (Bap)으로 읽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한국 입양인 출신 프랑스 하원의원 "대선 출마"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돼 국회의원이 된 조아킴 손포르제(36·사진) 의원이 2022년 프랑스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의원으로 원내에 처음 진출했다가 갈등 끝에 사실상 방출된 그는 특히 마크롱의 전 수행비서로 '베날라 게이트' 의 당사자였던 알렉상드르 베날라와 손을 잡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도전한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손포르제 의원은 전날 C8 방송의 생방송 토크쇼 '투슈 파 아 몽 포스트' 에 출연해 "나는 프랑스인들에게 제시할 프로젝트가 있고 대권에 도전해 건설할 과제가 있다." 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며 차기 대권 도전을 깜짝 선언했다.

손포르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 (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으로 2017년 34세의 나이로 하원에 입성했지만 1년 반 뒤 탈당한 뒤 독자노선을 모색해왔다. 평소 활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해오던 그는 트위터에서 녹색당 소속 여성 상원의원에 대해 성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려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2018년 12월 스스로 탈당했다. 그는 현재 무소속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절대적 가치' 라는 뜻의 '발뢰르 압솔뤼' 를 창당했다.

손포르제는 1983년 7월 서울 마포의 한 골목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돼 이듬해 프랑스로 입양됐으며, 프랑스 명문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파리고등사범학교(ENS) 등지에서 수학했다.

의학을 공부한 뒤 스위스 로잔에서 의사로 일하던 그는 2017년 6월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당 소속으로 출마해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해외 지역구에서 34세의 나이로 당선됐다

아프간서 여성과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 총살

아프가니스탄 남성들이 산책을 하던 여성의 반려견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뉴시스' 에 따르면 여성을 위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바 바라크자이는 지난 7일 애완견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끔찍한 비극을 겪었다. 총을 든 남성들이 "여자는 키울 자격이 없다." 며 그의 7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쏴 죽인 것이다.

바라크자이는 13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며 그러나 이날은 평소에 보지 못한 남성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등산을 시작한 지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쯤 만난 남성들은 갑작스럽게 개의 몸통에 총을 겨눴다. 바라크자이가 소리를 지르며 쏘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곧장 개의 가슴팍에 네 발의 총을 쐈다. 일당은 그를 향해 "여자는 시베리아 허스키를 키울 수 없다." 고 말했다.

바라크자이가 총을 맞은 개를 품에 안고 차를 향해 달리자 남성들은 그녀에게 총구를 돌렸다. 그들은 "개를 버리라" 고 위협했다. 바라크자이는 결국 사체를 산에 놓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바라크자이는 7개월 전 푸른 눈을 가진 허스키를 입양했다. 이름은 '하늘' 이라는 뜻의 아스만이라 지었다. 허스키의 하늘색 눈동자를 보고 지은 이름이다. 그는 비극을 겪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바라크자이는 현지 매체인 카마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을 걸 안다." 면서 "이 나라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지만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고 말했다.